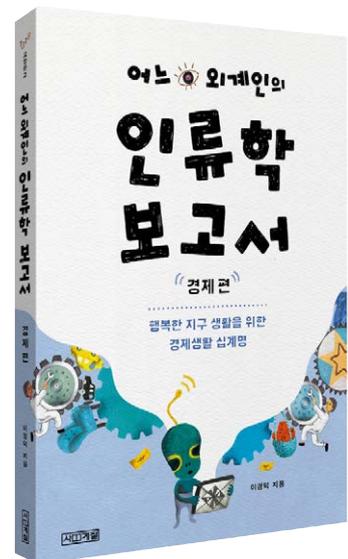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경제 편

작성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성지현(시흥 군서고등학교 교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덕 지음

■주 제 어 #경제인류학 #경제문화 #사람을_위한_경제

■분 류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도서 소개

지구 경제생활 십계명!

우리 이웃 중에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인들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볼까?

'아름다운 고리'라는 행성에 살던 외계인들은 그들의 태양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겨울과 여름만 반복되는 이상 기후에 지독한 흉년이 계속되자 서로 빼앗고 다투는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다. 그러던 중 '지구'라는 행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어느 행성보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지구인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에 외계인들은 지구에 정착하기 위해 지구의 경제생활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외계인들은 자동차와 집과 냉장고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몸은 마르고 긴 것을 좋아하는 지구인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참혹한 전쟁과 고난을 겪은 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아름다운 고리의 외계인들은 큰 자동차나 냉장고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라고 여기고, 위대한 영혼이 깃든 큰 머리가 좋다고 말한다.

외계인들의 이야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진행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생각하게 한다. 두 사람이 파이를 나눌 때 파이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범칙금을 부과할 때 돈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책은 외계인이라는 타자(他者)의 입장에서 지구 경제의 문제와 본질, 경제 성장의 한계와 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외계인이 인류의 경제생활을 바라보는 것처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학습 목표

오늘날 지구 경제의 기본적인 내용과 경제와 관련된 문제점, 그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제시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류의 경제 활동과 경제 문화를 풍요롭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생각 열기〉 죄수의 딜레마 게임	1차시
독서	교환과 거래 속에서 탄생한 화폐 이야기 [1. 지구인에게 믿음을 잃지 마라] 읽고 활동하기 [2. 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잘 활용하라] 읽고 활동하기	2차시
	인간적 부채와 값진 투자로 신용 사회 만들기 [3. 가치 있게 투자하라] 읽고 활동하기 [4.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어라] 읽고 활동하기 [5.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읽고 활동하기	3차시
	노동의 즐거움 [6.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라] 읽고 활동하기 [7. 직장보다 직업을 선택하라] 읽고 활동하기	4차시
	지구 경제의 문제와 대처 방안 [8. 물건의 주인이 되어라] 읽고 활동하기 [9. 지구 경제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라] 읽고 활동하기 [10.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읽고 활동하기	5차시
	- 입론서의 구성 요소 파악하기 -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 - 입론서 작성하기	6~8차시
독서 후	-〈글쓰기〉 경제생활의 '믿음' 요소 찾기, 논제 쟁점 찾기 -〈글쓰기〉 사회 문제 대안 찾기	9~10차시

1. 〈보기〉를 참고로 카드놀이 활동을 해 봅시다.

〈보기〉

카드: 파란색, 빨간색(모둠 수대로)

참가자 구성: 2인 한 모둠

진행 방법

- ① 두 모둠이 함께 게임을 한다.
- ② 한 모둠의 두 명은 정해진 시간(2~3분) 동안 어떤 색의 카드를 제시할지 협의한다.
- ③ 협의 시 다음 조건을 고려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모둠	
		파란색	빨간색
A 모둠	파란색	두 모둠 모두 0점	A: -9점, B: 0점
	빨간색	A: 0점, B: -9점	두 모둠 모두 -5점

- ④ 협의가 종료되면 두 모둠은 동시에 카드를 제시한다.
- ⑤ 협의 시 두 모둠 간의 대화와 일체의 소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⑥ 제시한 색에 따라 위 표에 정해진 점수를 받으며 게임을 3회 반복한다.
- ⑦ 3회 반복 후 모둠 별로 얻은 점수를 확인한다.

선생님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마이너스 점수 획득)를 보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빨간색 카드'를 내서 최소한 비기든가 상대방이 파란색 카드를 낼 경우 이기는 상황이 될 것을 계산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험 결과, 어떤 모둠에서 파란색 카드를 내더라도 계속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빨간색 카드를 내서 양측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경제 활동 중 일어나는 경우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독서를 통해 찾아보는 동기 부여의 활동으로 활용합니다.

2.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게 되거나 배운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보기>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생각해 보고, 해결 방안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둠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에 수학자이자 프린스턴대학 교수인 앨버트 터커가 강의 때 사용한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 게임 이론 중 비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명의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어 왔다고 가정하자. 이 범죄자들은 각각 독방에 수감되었다. 검찰로서는 두 명의 공범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이들에게서 자백을 받아 범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우고 각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한다. 이때 경찰은 두 공범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다.

다른 한 명의 공범에 대해 자백을 하면 자백한 그 사람은 석방하는 반면, 다른 공범은 징역 3년을 받게 된다. 이는 상대편 공범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누구든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한 그 사람은 석방되지만 상대편 공범은 3년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나 두 공범이 모두 자백을 하면 각각 징역 2년을 받으며, 둘 다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각각 징역 1년을 받게 된다.

		B	
		자백	묵비권
A	자백	A, B 모두 징역 2년	A 석방, B 징역 3년
	묵비권	A 징역 3년, B 석방	A, B 모두 징역 1년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경우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백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이 경우 두 사람이 받게 되는 최소한의 형량은 2년씩이 되며 둘이 얻은 전체 형량은 4년이 되어 한 사람만 자백을 한 3년보다도 더 많은 형량을 받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사례로는 두 빵집이나 주유소가 경쟁 업체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가격 할인 행사를 서로 하는 바람에 두 가게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나, 대립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자신의 승리를 위해 군사비를 증강시키며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 있다.

다른 사례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 31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지구에 이주한 아름다운 고리의 외계인들은 지구인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밝혔습니다. 다음의 활동을 통해 지구와 아름다운 고리의 경제 분야를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

다른 사례	지구인의 답변	아름다운 고리의 외계인들의 답변
돈이란?		
'경제'의 의미는?		
무엇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2.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때, 혹은 더치페이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해 봅시다.

첫 번째 관점은

.....

.....

.....

두 번째 관점은

.....

.....

.....

※ [1. 지구인에게 믿음을 잃지 마라](35~59쪽) 읽고 활동하기

1. 책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p>START 과거 인류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끼리 물물교환을 했다.</p>	<p>No →</p>	<p>신용거래와 물물교환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다.</p>	<p>No →</p>	<p>아프리카 콩 부시맨들은 선물을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p>	<p>Yes →</p>	<p>낮선 사람과의 물물교환은 매우 위험하다.</p>
<p>고대 인류는 낮선 사람과 침묵교역을 했다.</p>	<p>Yes →</p>	<p>약수하는 관습은 상대의 손에 무기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p>	<p>Yes →</p>	<p>침묵교역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이뤄진다.</p>	<p>Yes →</p>	<p>물물교환으로 친해진 사이에서 축제가 발생했다.</p>
<p>인류는 안전한 거래와 교환을 위해 종교를 활용했다.</p>	<p>No →</p>	<p>이슬람교의 메카는 '신의 휴전 기간' 때문에 교역과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p>	<p>No →</p>	<p>인류는 안전한 거래와 교환을 위해 국가의 힘을 이용했다.</p>	<p>No →</p>	<p>'쿨라'는 안전한 교역을 보증하는 교환 체계이다.</p>
<p>세금 덕분에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 있었다.</p>	<p>No →</p>	<p>국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시장이 개설되었다.</p>	<p>No →</p>	<p>시장은 사교와 혼담의 공간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시켰다.</p>	<p>No ←</p>	<p>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믿음'이 없이도 거래와 교환을 하고 있다.</p>
<p>다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어 볼까요?</p>	<p>No ↙</p>	<p>다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어 볼까요?</p>	<p>No ↙</p>	<p>책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었네요 ^^</p>	<p>Yes ↓</p>	<p>다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어 볼까요?</p>

선생님께 모든 정답을 맞히고 경로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책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었네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답이 정답보다 많다면, 책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한두 개의 질문에 오답을 했는데도 책 내용을 잘 읽었다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오류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생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각 문항에 대해 Yes/No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지구의 경제 활동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미래 사회의 거래와 교환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 [2. 돈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라](61~81쪽) 읽고 활동하기

1. '돈'(화폐)의 탄생부터 성장기와 현재까지의 인생 곡선을 그려 보고 시기별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2. 미래 화폐는 현재와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자신이 상상하는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 [3. 가치 있게 투자하라](83~99쪽) 읽고 활동하기

1. 다음은 부채(빚)에 관한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빈칸을 채워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인간적인 빚	상업적인 빚
성격		
발생 과정		
값는 방법		

2. 다음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논증해 보세요.

주장: 친한사람들끼리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처럼 친하지 않은 사이이다.

나의 주장:

이유:

근거:

3.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투자는

이다.

반면에 투기는

이다.

그 예로

가있다.

※ [4.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어라](101~121쪽) 읽고 활동하기

1. 최근 누군가에게 선물했거나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면 다음을 작성해 봅시다.(조금 오래된 경험이어도 가능) 그리고 두 경험에서 나타난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 봅시다.

	목적	대상	내용	그 경험에 담긴 나의 마음
선물 경험				
상품 구입 경험				

두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2. 다음 순서에 따라 활동해 봅시다.

[활동 방법]

- 1) 1인 1신문(종이로 된)을 준비하고 4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 2) 신문에서 다음의 조건이 나타난 내용을 찾아 오린다.

〈신문에서 찾아야 할 내용〉 1인 1텍

- ① 선물의 선순환 구조가 드러난 모습
- ② 시장 교환의 모습
- ③ '포틀래치'와 같은 기능을 하거나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내용
- ④ 물건이 지닌 '값어치'에만 집중하는 사회 현상

3)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Community)의 모양을 큰 종이(4절 이상)에 그린다. 예를 들어 지구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지도 혹은 일반적인 원이나 별 모양 등 그 모양은 다양하다. 그렇게 그린 모양 위에 앞에서 찾은 신문 기사를 붙인다.

4) 내가 살고 싶은 아름다운 사회에 대해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붙인 신문 기사の内容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적는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발전시킬 것인지 혹은 줄여 나갈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정리한다.

5) 발표를 통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선생님께 3번 단계에서 신문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개인 의견을 모아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소감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타난 현상을 모아 보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어떤 현상이 많아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믿음'에 근거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3, 4단계의 연관성에 집중하여 활동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 [5.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123~145쪽) 읽고 활동하기

다음 순서에 따라 활동해 봅시다.

〈놀이 방법〉

- ① 학급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A팀, B팀(B팀에는 1인당 3만 원의 금액 지불, 장난감 돈 활용)
- ② A팀의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20분의 시간에 원금과 이자율을 정하고 친구들에게 홍보합니다.
- ③ B팀은 A팀의 친구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친구의 시간을 빌립니다.(홍정 가능)
- ④ B팀의 친구들은 A팀 친구들의 시간을 빌리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대여한 시간의 주인인 친구와 함께 20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 ⑤ 활동 이후 다음 질문에 답합니다.

A팀 친구의 소감 질문

- 20분의 시간에 해당 금액과 이율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 나의 시간을 빌리고자 제안한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홍정의 내용이 달라졌는가?
- 이자를 받을 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 이자와 인간관계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는가?

B팀 친구의 소감 질문

- 20분의 시간에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불한 이유는 무엇인가?(왜 그 친구의 시간을 대여했는가?)
- 다른 사람의 시간을 대여하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 시간을 빌리려는 대상이 나와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 홍정의 내용이 달라졌는가?
- 이자를 지불할 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 이자와 인간관계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는가?

※ [6.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라](147~175쪽) 읽고 활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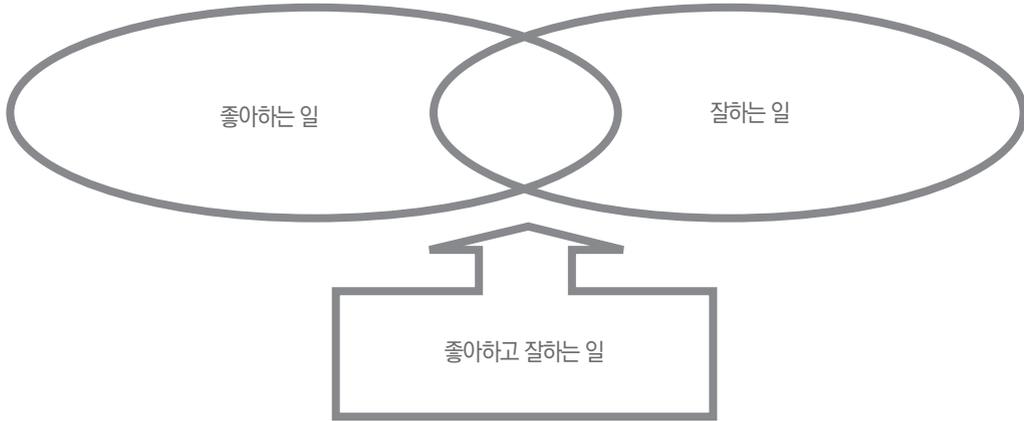
1. 노동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인식과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노동		
과거	현대	내가 생각하는 노동은?

선생님께 노동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인식은 150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은 신이 인류에게 부여한 신성한 것,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점에서 '삶의 보람'으로 인식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뭘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진행합니다.

※ [7. 직장보다 직업을 선택하라](177~191쪽) 읽고 활동하기

1.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고 직업으로 연결시켜 봅시다.



선생님께 179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업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 진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활용합니다.

2. '감정 노동', '플랫폼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현대	감정 노동	플랫폼 노동
개념	돈을 벌기 위해 육체나 정신에 더해 감정까지 조절해서 노동하는 것	
대표적인 직업		
발생 피해		
발생 원인		

감정 노동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께 학생들이 감정 노동의 폐해와 원인, 사회적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 직업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5차시

독서 - 지구 경제의 문제와 대처 방안

※ [8. 물건의 주인이 되어라](193~225쪽) 읽고 활동하기

1. 다음을 백화점 마케팅 팀장의 판매 전략 메모라 할 때, 소비를 촉진하는 판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 ◆ 바겐세일 전략
- ◆ 문화센터 프로그램
- ◆ 입점 브랜드
- ◆ 공간 구성
 - 입구
 - 화장실
 - 실내 인테리어
- ◆ 백화점 홍보 전략

선생님께 소비 전략에 따른 백화점의 판매 전략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올바른 소비 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2.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 또는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물품을 3~5개 정도 나열해 보고, 선호 또는 소유하는 이유와 목적을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224~225쪽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지구 경제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라](227~243쪽) 읽고 활동하기

1. 경제적 불평등의 종류와 원인을 예시와 함께 각각 정리해 봅시다.

경제적 불평등	
종류	원인
[예시]	[예시]

※ [10.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라](245~264쪽) 읽고 활동하기

1. 공유 경제와 도덕 경제의 개념과 예시를 정리해 봅시다.

공유 경제	도덕 경제
[예시]	[예시]

2.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 '돈', 즉 경제 활동에 대한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1. 입론서의 구성 요소 파악하기

1) 다음의 글을 자연스러운 순서로 배치해 봅시다.

①	첫째,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촉법 소년의 연령을 9~12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③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는 높아진 것에 반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은 낮아졌기 때문에 처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④	촉법 소년이란 현재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즉,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만,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촉법 소년의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⑥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잘못된 행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보살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에 의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폭력, 방화, 무고 등 그 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만약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단지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학교 차원의 징계 내지는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에 그칠 뿐이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⑦	둘째, 처벌로 인한 범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⑧	또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초,중,고생과 교원 총 4만 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생의 73.5퍼센트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⑨	한편 절도나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부터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 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론이란 토론에 필요한 논증의 순서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입론서를 미리 준비하여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입론 발언 시 내용 전개 순서입니다. 위의 번호를 다음 빈칸에 알맞게 넣어 봅시다. 그리고 위에서 배치한 순서와 비교해 봅시다.

주장	
논의 배경	
용어 정의	
이유1	
근거1	
근거2	
이유2	
근거1	
근거2	

2.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

논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 논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제
 - 사실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참이나 거짓이냐로 양립 가능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② 가치 논제: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논제
 - 가치 논제는 무엇이 좋고 나쁘지 혹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어떤 가치를 더 우선으로 돌지에 대한 것으로 '좋으나, 나쁘냐', '바람직하나, 바람직하지 못하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가려야 한다.
- ③ 정책 논제: 정책의 실효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논제
 - 정책 논제는 제시된 정책이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행이 가능한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논제의 유형은 정책 논제에 해당합니다. 법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할 때, 꼭 언급해야 하는 논쟁의 중심이 되는 지점, 즉 쟁점(爭點)이 있습니다. 이를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 ① 문제 상황의 심각성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만큼 현재 문제 상황이 심각한지를 따져 본다.
- ② 해결 가능성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함으로 인해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본다.
- ③ 이익성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큰지를 따져 본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 논제를 하나 선정하여 필수 쟁점 3가지만 작성해 봅시다.

논제	
쟁점1	
쟁점2	
쟁점3	

선생님께 이 활동에서는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학습합니다. '중고생의 화장을 금지해야 한다.', '먹방을 금지해야 한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논제를 선정하면 더 좋습니다.

3. 입론서 작성하기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논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여 입론서를 작성해 봅시다.

논제	19세 이상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입장	찬성 / 반대
논의 배경			
용어 정의	19세: 만 19세로 법적으로 성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다. - 기본소득제: - 월간 생계비: -		
쟁점1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가?		
이유			
근거			
쟁점2			
이유			
근거			

선생님께 책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정책 논제로 만들어 입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 (가)와 (나)를 읽고, ㉠ ‘인류가 경제생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던 요소’들을 정리하고 ㉡ ‘미래 경제생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봅시다. (500자 내외)

(가)

인류가 경제생활에서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자.

인류의 물질생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느 때든지 믿음(신용)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 물물교환은 ‘낯선’ 사람과의 거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상대와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의 교류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간혹 직접 서로를 만나지 않는 침묵교역으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직접 얼굴을 보며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에서는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면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문화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방해하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또, 인류가 위험하고 낯선 사람과의 안전한 거래와 교환을 위해 궁리해 낸 것이 특정 시간과 장소였다. 그 가운데 종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아주 오랜 세월 종교는 인류의 문화를 지탱해 왔다. 현대에 들어 종교가 약해지면서 국가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국가가 믿음을 제공하게 되자 돈과 시장이 경제생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가가 발행한 돈은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와 교환을 위한 수단이었고, 국가가 펼쳐 놓은 시장은 그 거래와 교환을 위한 장소였다.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 경제 편』 38-57쪽 부분 발췌, 편집)

(나)

유럽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 과정은 믿음의 발전 과정이다. 믿음은 모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거래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 행위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아직 사법 체계와 재판 절차, 제재 규정이 취약했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복잡하고 위험하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거래에서는 진정 상대방을 신뢰해야 했다.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방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로 인해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역은 새로운 형태의 우애가 되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근대에 들어서 이런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점차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 구현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다. 유럽은 이런 새로운 믿음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에 의해 재건되

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이전의 믿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인간관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무관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데에 있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며 그들의 취약성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금융 거래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같은 거래는 비인간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믿음을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모책이나 통치 체제도 진정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익명의 너를 신뢰하라』, 루이지노 브루니(L. Bruni), 편집 및 요약)

선생님께 경제생활에서 믿음의 요소로 (가)에서는 ‘축제, 문화, 종교, 국가’ 등을, (나)에서는 ‘종교, 은행’을 언급한 점을 중심으로 발문의 첫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로 (나)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인류가 경제생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던 요소

㉡ 미래 경제생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2. 195~206쪽 내용과 <보기>를 참고하여, 논제 ‘소비가 미덕이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추가로 조사한 후 표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보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며 소비가 적으면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소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장사가 잘 안 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며 돈이 있는 사람에게 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까지 벌인다.

그렇지만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져도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따른다. 소비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지나친 소비 역시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소비가 건전한 경제 성장을 돕는 보약이다.

(『17살 경제학』, 한진수, 캘리온)

찬성	쟁점	반대
<긍정적 개념>	소비의 개념	<부정적 개념> 소비는 지구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부추겨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욕망의 상징이다.
<경제에 미치는 소비의 가치>	우선 가치	<경제에 미치는 절약의 가치>

1. (가), (나), (다)를 읽고, ‘감정 노동자를 배려하는 소비자 매너’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봅시다.

(가)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감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감정 노동이란 육체도 사용하고 정신도 사용하지만 감정 소모가 심하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 말은 엘리 러셀 혹실드가 만든 것으로 “급여에 대한 대가로 이뤄지는 행위로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정과 몸짓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돈을 벌기 위해 육체나 정신에 감정까지 조절해야 하는 노동을 말한다.

감정 노동은 대개 외부 고객을 상대로 하며 지나친 고객의 요구에도 웃음으로 대하는 노동이다. 고객이 도를 넘는 언행을 해도 억울함과 분노를 참고 억지로 웃으며 대하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육체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경제 편』 182~183쪽)

(나)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들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지면서 더 이상 제품의 품질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지자 고객 만족의 핵심이 친절한 서비스로 옮겨가게 됐고, 이는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맹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특히 감정 노동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현대 산업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일반 서비스 직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종이 감정 노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손님은 왕’인 시대도 지났고 덮어놓고 읊인 시대도 아니다. 소비자는 갑도 을도 아닌 거래 관계의 한 당사자이자 성실한 생활자일 뿐이다. 소비자는 경제 주체로서 공정 거래, 계약 준수, 시장질서 준수 등의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책무의 성실한 수행도 필수적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사회 전체의 매몰 비용을 줄이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소비자 매너의 기본 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소비자의 매너는 건강한 소비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외, 미래의 창)

2. (나)의 '긱 경제'(Gig Economy)가 (가)의 '공유 경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글을 써 봅시다.

(가)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는 물건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빌리고 나눠 쓰자는 경제 모델이다. 이를 통해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나 돈보다도 인간을 우선하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사례로 협동 조합이 있다. (254쪽)

공유 경제 전문가 에이프릴 린은 공유 경제의 조건으로 효율성, 공동체 지향성, 지속 가능성을 든다. 유형 또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 공유 경제 조건이다.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사는 구조다. 하지만 그 집을 하루 24시간, 주 7일 모두 활용하지는 않는다. 이를 공유하는 것이 주택 공유 경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유 경제는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한다. 공유가 금전적 수익보다 상위 개념이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블라블라카(BlaBlaCar)는 이동수단을 공유한다. 기존 택시 요금의 10~25퍼센트만 받는다. 돈이 목적이 아닌 셈이다. 관광객이 현지인과 이야기하며 여행할 수 있다.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공유 경제는 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이 특성이다. 자원을 낭비해 환경을 해치면 그런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유 경제 10년의 빛과 그늘」, 「에이프릴 린 인터뷰」 재구성, 중앙일보, 2019.03.23)

(나)

긱 경제(Gig Economy, 일용직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긱(gig)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긱 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긱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지고, 긱 경제 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혹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제도적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은 정체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두산백과)

선생님께 공유 경제 전문가 에이프릴 린은 긱 경제는 일용직 경제로 공유 경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관점을 토대로 글을 쓰도록 지도합니다. 효율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발견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합니다.

